

전남도, 여수광양항 3兆 투자 “亞 최고 복합항만 육성”

**여수광양항 활성화 대책 발표
4개 사업에 17개 과제 발굴
‘컨’ 부두 경쟁력 제고 등 추진**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에 3조원대를 투자해 아시아 최고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0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형선사 이탈 등으로 어려운 여수광양항에 2027년까지 단계적인 항만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단지 조성 확대,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총 3조2600억 원을 투자할 큰 틀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여수광양항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총 물동량 5억 톤, 부가가치 2조 7000억 원, 일자리 1만 6000개를 창출할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단기전략으로 포스트코로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여수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청

나에 대응하고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제위기 극복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항만마케팅 강화, 지역기관 협력체계 운영 등에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전략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스마트 복합항만’ 구체화를 위해 3조 2400억 원을 투자해 ‘컨’ 부두 활성화 정책수립과 항만기반시설 확충, 항만 배후단지 확

대, ‘컨’ 부두 경쟁력 제고 등 4개 사업에 17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여수광양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전략 중 ‘컨’ 부두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광주전남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대학 등 전문기관 등과 함께 지역연구그룹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광양항발전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항만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광양항 내부순환도로 2.1km개설 및 항로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3단계투기장을 비롯해 여천모도수로 항로 준설, 낙포부두 3선석 리뉴얼, 울촌2산단 낱사(Naphtha)부두 12만 톤급 1선석 건설 등에 7500억 원을 투자, 여수광양항의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게 된다.

항만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서도 내년까지 세공산단 33만㎡를 항만 배후단지

로 우선 확대 지정하고 2025년까지 북측 배후단지 11만㎡를 조기 조성한다. 또 2027년까지 4562억 원을 투자해 울촌3단계투기장 융복합단지 318만㎡를 개발하는 등 항만 배후단지를 늘려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뉴딜사업과 연계될 자동화 ‘컨’ 터미널 4선석 개발에 오는 2024년까지 5940억원이 투자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프린스 승마클럽

안동 프린스 승마클럽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경북 안동시는 ‘프린스 승마클럽’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마사회가 지원하는 ‘2021년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프린스 승마클럽은 이번 선정에 따라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중 50%는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지원 받게 된다.

현재 안동에는 농어촌형 승마장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되면 지역의 기량 있는 승마 인재 발굴은 물론 승마산업 저변 확대 및 스포츠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경북도 14일부터 추석 특판행사 “공공기관 2차이전 광주, 전남 상생 필요”

**30일까지 17일간 안테나숍서 진행
건강식품 등 일부상품 10~25% 할인**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안테나숍 6곳(대백프라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이마트 경산·구마·포항·대구월배점)에서 농촌융복합(6차) 산업제품 추석 특판행사를 연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를 돕고 소비자에게는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판 행사에서는 버섯, 벌꿀, 건강식품 등 일부 명절세트 상품을 10~25% 할인하고 2+1, 5+1, 10+1 덩, 구매금액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 지급, 추석 ‘햇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안테나숍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경북도는 오는 14일부터 17일간 안테나숍 6곳에서 추석 특판행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안테나숍 매장

의 홍보와 판로 확대뿐 아니라 소비자 반응과 성향을 파악해 생산자의 상품 개선에 활용하는 곳으로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경북도는 농촌융복합 산업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매망 확대를 위해 농특산물 소포물 ‘사이소’와 우체국 소포물에 6차산업 브랜드관을 개설했으며, 수도권 지역에도 안테나숍을 설치할 계획이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공동유치협의회 구축 필요성 주장**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광주, 전남 상생을 위해 공동유치협의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은 1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주 대응전략 정책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난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한민국도시계획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추진, 충청권의 경제공동체 구축 노력 등 타 지역의 상생 분위기를 소개하며 광주, 전남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상생의 방안으로 광주·

전남 공공기관 유치협의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협의회에 대상기관 선정, 유치전략 마련, 혁신도시 조성 활성화, 상생발전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의 공간 입지전략을 발표한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광주시가 별도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더라도 공동혁신도시의 틀을 유지하되 광주 행정구역 내에 혁신지구를 지정해 기존 빛가람혁신도시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원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대표는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 공공의사 분쟁 등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에 있다”며 “지역의사 공급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시립이나 도립 의과대학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부산시, ‘BB21+’ 2차연도 우수사업단 선정

동아대·동의과학대 등 우수 선정

부산시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동아대 고품질화 바이오소재사업단 등 4개 사업단을 ‘BB21+(Brain Busan21 Plus)’ 2차연도 우수사업단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가 부산지역 13개 대학 2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BB21+ 사업’ 2차연도 성과평가를 한 결과 ▲동아대 ‘고령친화 바이오소재 사업단(김오연)’ ▲동명대 ‘기계부품 자동차 시스템 융합인재 양성 사업단(이현섭)’ ▲동아대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사업단(조종

현)’ ▲동의과학대 ‘친환경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김만호)’ 등 총 4개 사업단이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17년간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다.

특히 2018년 기준 ‘BB21 사업’이 ‘BB21+ 사업’으로 개편된 후 지역 내 기업, 단체, 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 및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등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경북교육청, 특수학교 학생 안전강화

학교 CCTV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

경북도내 특수학교 건물 안팎에 설치된 CCTV가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학생들의 안전이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10일 도내 모든 특수학교의 건물 밖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내 8개 특수학교는 7개 지자체에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3개 지자체와 합의해 현재 특수학교 4곳의 CCTV 33대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통합관제센터

올해는 지난 4월 1개, 9월에 3개 지자체와 합의해 올 연말까지 특수학교 4곳의 CCTV 42대를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부터 지자체 관제센터 직원들이 관찰하게 된다. /경북=문봉현 기자

영양군 “민원응대 직접 평가하세요”

영양군은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50일 간) 방문 민원인들이 전 부서(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민원응대 서비스를 직접 평가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방법은 신분을 숨긴 채 서비스를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Mystery Shopper) 방식이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응대 품질 평가표’를 현장 배부 후 회수하게 된다. 평가는 부서별로 2~3회 실시 한다.

평가내용은 환경, 맞이태도, 상담태도 및 업무처리, 마무리, 전체 만족도 등 5개 항목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김천시 농촌 신활력 공모사업 선정

경북 김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지역 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천시는 내년부터 4년간 국비와 시비 포함 70억원을 들여 도시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시는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체험 마을 활성화, 농산물 판로 확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산지유통센터와 도매시장 및 공판장 통합이전, 로컬푸드 직매장, 테마카페·공원 등 유통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12136@